



결혼 이혼 도박 빚 ...

골치 아픈 연예계

연예계가 유튜브에 올라온 '가짜뉴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 유튜브에 올라온 현빈-손예진 부부 이혼 소식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에는 현빈이 도박으로 150억원을 날리고, 손예진과 합의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에는 '배우 송중기 6개월 만에 파혼', '배우 박보검 하지원 깜짝 결혼 발표', '백종원 소유진 결국 이혼', 가수 김호중 송가인 12월 결혼' 등의 가짜뉴스가 업로드됐다.

연예인들의 사진을 영상하게 짜깁기한 데다가 짜짜라는 의심이 들 만큼 황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회수는 하루 이틀 만에 수십만 회를 기본으로 넘고, 110만회가 넘어가는 영상도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한 채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예인들의 결혼, 이혼, 도박, 빚 등 자극적

인기 연예인 사진 짜깁기
황당한 내용에도 수십만뷰
법적 대응해도 영상 재생산
"논란 영상, 표시 등 식별 필요"

인 제목을 앞세운 영상들을 올린 채널도 여러 개다.
지난해에는 당시 고령으로 건강 이상설이 돌던 '국민 MC' 송해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여러 차례 올라오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가짜뉴스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즉각적인 영상 삭제는 쉽지 않다. 게다가 신고를 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올라오는 등 재생산, 재배포되는 경우도 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던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관계자는 "영상을 올린 채널에 법적 대응을 하고 삭제 요청을 해도 그때뿐"이라며 "가짜뉴스를 올리는 채널은 영상으로 수익을 보면 사라졌다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다시 가짜뉴스를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명했다.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업체 관계자는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동으로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에도 연예인들의 사진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필터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유튜브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 대응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창작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허위 정보라고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정보를 굵어 짜깁기하는 게 너무 쉬워진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명예훼손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어떤 해를 입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고민도 잘 하지 않고 있다.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신고된 뒤 영상은 논란이 된다는 마크(표시)를 달아둔다든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밥·빵·정원으로 살펴보는 아시아 문화

ACC, 6월까지 아시아특화교육·문화예술체험 진행



한국의 대표 정원으로 꼽히는 담양 소쇄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밥'과 '빵'은 아시아인의 일반적인 주식과 간식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많은 문화와 예술,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돼왔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콘텐츠화가 가능한 소재다. 또한 정원은 자연적인 풍경 또는 인위적으로 재현한 풍경을 매개로 다채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쉽고 힐링을 넘어 창작의 영감 소재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밥'과 '빵' 그리고 '정원' 등을 모티브로 아시아 문화를 조명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아시아특화교육과 아시아문화예술체험을 마련했다. 아시아 정원와 인장을 체험하는 ACC특화교육과, 아시아 도시의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ACC문화예술체험이 그것.
먼저 아시아특화교육은 '아시아를 새기다'와 '아시아 정원문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오는 30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모두 19회가 펼쳐진다.
먼저 '아시아를 새기다'는 문명 속에서 문자와 인장(印章)의 발전과정을 알아본다.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인장과 엽서를 만들어보며 새로운 시각으

로 아시아를 이해하는 취지다.
한·중·일 각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 정원문화'는 동아시아 정원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다. 아생화, 돌, 흙 등 재료를 이용해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풍경 정원'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은영 중부대 교수와 정연주 꽃피우다 플라워 디자인 스텝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오는 4월 5일부터 6월 21일(첫째, 셋째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문화예술체험은 모두 아시아 여행 강사들로 구성됐다.
전남대 이기중 교수는 일본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아시아 밥 로드'를 진행한다. 일본 밥 문화를 주제로 와소쿠, 요소쿠, 벤토 등을 함께 나누며 일본 밥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아시아 빵 로드'는 아시아 빵 여행 작가인 박미이·복혜원 강사가 담당한다.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화를 모티브 삼아 특색 있는 빵의 세계를 전할 예정이다.
강좌는 전액 무료다. 수강 신청은 20일부터 각 교육별로 15~30명씩 선착순으로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故 서지원, AI로 27년 만에 새 음반

옴니뮤직, 목소리 복원
'리버스 오브 서지원' 27일 발표



'내 눈물 모아' 등으로 199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故) 서지원이 현대 기술에 힘입어 팬들에게 돌아온다.

21일 음반 제작사 옴니뮤직은 서지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새 음반 '리버스 오브 서지원' (Rebirth of Seo Ji Won·사진)을 이날 27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은 1996년 3월 '메이드 인 헤븐' (Made In Heaven) 이후 27년 만에 서지원의 이름으로 나오는 음반이다. 이번 음반에는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한 곡이 수록됐다. 본래 이승환의 1집 'BC 603' 수록됐던 이 곡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목소리 복원 기술을 통해 서지원의 목소리로 재탄생했다.

옴니뮤직은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 약 1년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곡을 완성했다"며 "목소리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내기 위해 음

니뮤직이 보유한 서지원 음성 파일을 총동원했다"고 소개했다.
1994년 정규 1집 '서지원' (Seo Ji Won)으로 가요계에 처음 등장한 서 지원은 맑은 미성과 담백한 창법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1996년 1월 2집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앞서 옴니뮤직은 2021년 서지원의 1집과 2집 발매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옴니뮤직 측은 "이번에는 협의가 다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니 '막강 존재감'

솔로 뮤비 9억뷰...K팝 여성 최초

결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2018년 발표한 '솔로' (SOLO)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 수가 9억 회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2018년 11월 공개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인 이날 0시 56분께 9억뷰를 넘어섰다. YG는 "이는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초이자 최고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솔로'는 도입부의 아름다운 코드, 간결한 멜로디, 이별 후에도 슬픔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면모를 솔직한 가사로 풀어내 인기를 끌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20억뷰를 기록한 '뚜두뚜두' (DDU-DU DDU-DU)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유튜브 9억뷰 이상 영상을 총 7번 보유하게 됐다.

블랙핑크는 다음 달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과 7월 영국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 같은 해외 대형 음악 축제에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음반에 생생한 진도 향토민요

국립남도국악원 '남도예술아카이빙' 첫 결과물...연말 두번째 앨범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이 수집해온 자료들을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남도예술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첫번째 결과물인 '진도의 향토민요 1: 상여소리'가 나왔다. 이 음반은 2021년부터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빙에 보관돼 있던 음악 자료들을 정리해 발간했다. 음반에는 진도를 대표하는 양흥도, 손판기, 박성용, 박병천 명인의 '매기는소리'와 함께 근대민, 인지리 주민들의 '발는소리' 등 옛 진도지역의 순수하고 구수한 향토민요가 생생하게 담겼다.

남도국악원은 연말 '진도의 향토민요 2'를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남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지난 9일 국악원 진악당에서 '진도의 향토민요' 음반 제작 기자회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정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저작권 등의 문제로 보존만 하고 있던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



할 수 있게 된 것은 진도 예술인들의 결정적 도움이 있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정식에는 강강술래보존회, 덕병거리제보존회, 의신청용마을, 진도다시래기보존회, 진도만가보존회, 진도씻김굿보존회와 손승기 명창의 자제 손승오, 해외만 음악학자의 자제 해상광씨가 참석했고 이들에게 음반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 062-223-8007